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항상 마스크 하기 • 안전 거리 두기 • 손 자주 씻기
-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순교의 영성을 삶으로 실천하기

## (녹) 연중 제24주일

(2022. 9. 11.)

###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고집 센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중개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위해서도 교회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탈출기 32,7-11.13-14):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뻗뻗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 제2독서(티모테오1서 1,12-17):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나를 굳세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 복음(루카 15,1-32):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 헌: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511 미약하온 우리제물

영성체: 169 사랑의 성사 / 168 오묘하온 성체

파 견: 285 103위 순교 성인

## 공지 사항

### ♣ 본당 주보 성인 축일 및 한가위 본당 행사

본당 주보 성인 축일(9월 순교자 성월) 및 추석 한가위를  
 맞아 미사 후 친교 및 음식 나눔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사목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석을 맞  
 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기도  
 드립니다.

-기도(연도)

-친교나눔(음식,선물)

### ♣ 주일학교 개학식 - 9월 18일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리교사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회의 안내

[사목 평의회] - 9월 18일 미사 후 Sala gichi

### ♣ 봉사자

	오늘(11일)	다음 주일(18일)
제1독서	심현목 프란체스코	박재현 미카엘
제2독서	서수진 실비아	한진영 쟈마
복사	강윤이 스텔라	박시윤 이냐시오
복사	안태오 마태오	박동현 요한보스코
계단·화장실	심현목 프란체스코	박재현 미카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61.27€

• 교무금 € -